

# 내집 포기하고 주식 '빚투'에 올인한 2030세대, 괜찮을까?

청년, 영끌투자 괜찮을까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그 돈으로 더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주식은 난생 처음이라 남들 다 버는 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리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 (32세 직장인 A씨)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A씨처럼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2030세대가 급증했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빚투한 청

## 주식 빚투 역대 최고인데 금리인상 가능성 청년층 대출 비중 증가...주린이 수익률 ↓

년들은 괜찮을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공여 잔고는 23조733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돌파했다. 지난 2016년 동월 말 6조원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5년 만에 4배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 빚투 비중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만큼 증권 시장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지난 25일 3300선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빚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은 몰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미국 국제금리가 안정되면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수출 개선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하

반기에도 코스피는 자동차와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최고 3600선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출비중이 높은 데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난히 주식에 편중됐다는 점, 초보 투자자가 많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 등에서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주식시장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다른 연령층보다 그 여파가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원이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모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42.4%에서 55.3%로 늘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열풍에 편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들 주도했지만 그 이후로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세했다. 부동



산 매입이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카드론 등 신용대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위험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이미 주택 등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 다른 실물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투자하는 40~50대와 달리 젊은 층은 부동산을 포기하고 ‘올인’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데다 금리 인상이 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연착륙할 것을 시사했지만, 영향이 전혀 없

을 수는 없다”며 “만약 개인투자자에게 타격이 발생한다면 자산의 일부만 주식에 투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식이 올인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며 주식시장이 호황세를 누렸다고 하지만 주린이(주식 어린이)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린이가 많았던 청년들은 빚투 비중은 높지만 기대만큼 수익은 거두지 못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원이 지난해 3~10월 증권사 4곳에서 투자한 개인투자자 20만 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참 개인투

자 수익률은 5.9%로 고참 개인투자자(18.8%)의 절반도 안 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30대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할 때 취약 청년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선임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에는 채무조절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를 하고 투기적 수요층에는 금융교육 강화와 투기수요 차단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대출하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코인 벼락거지 면하려다”...암호화폐 시장 급락세에 2030패닉



### 코인 10개 중 9개 '폭'...뒤통에 뒹구는 투자자 손실 가능성 조정 기간 길어지자 “강세장 끝난 것 아니냐” 불안감 커져 “빚을 내서 많이 투자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 문제로 부담 ↑

제 107종 암호화폐 중 9종에 불과했다. 나머지 98종(91%)의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했다.

3개월전 대비 50% 이상 떨어진 암호화폐는 70종(65%)에 달했고, 이 중 90% 이상 떨어진 암호화폐는 3종이었다. 기간을 넓혀 6개월전과 비교하면 10개 중 9개의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지만, 뒤통에 뒹구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대장주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4월 14일 8199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4000만원대로 내려오며 반토막났다. 암호화폐 시장이 각각의 강력한 규제, 국내 거래소들의 대량 상장 폐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조정 기간이 길어지자 “강세장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투자층인 2030세대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는 부동산 등 기존 투자처보다 진입문턱이 낮은 암호화폐를 마지막 ‘대박’ 기회로 삼아 올해 코인 투자 열풍에 적극 뛰어들어왔다.

실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총 249만5289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81만6039명(32.7%), 76만8775명(30.8%)으로 전체의 63.5%

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예치금 증가율도 20대가 154.7%, 30대 126.7%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한 젊은 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차주수 및 신규 대출금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1.9%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58.4%로,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46.5%에서 55.3%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및 주식과 암호화폐 등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이후로는 신용대출이 증가세에 가세했다고 분석했

다. 지난해 말 청년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16.1% 증가한 130조 원 규모에 이르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청년층의 주식 및 암호화폐 투자 열풍 등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청년층의 비은행-신용대출 비중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 규모를 늘

려 투자해온 청년층이 금리 인상시 받을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청년층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빚을 내서 많이 투자하고 있으나 금리 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투(고점)를 잡았을 수 있고 월리금 상환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스

<b>호남신문</b> www.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b>	<b>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b>	<b>(061) 727-3123</b>
<b>서울취재본부</b>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